

# 세월호 부실대출·자원외교 실패 논란

정무위 등 9개 상임위 국감

MB정부 외국자원 투자 3조원 날려

국회는 21일 정부·산업통상자원·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 별도 국정감사를 계속하며 세월호 부실 대출 문제와 정부의 자원 외교 실패 등을 따졌다.

정무위의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기업은행 국감에서 의원들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의 부실 심사 여부를 집중 성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세월호 도입 당시 산업은행의 여신승인신청서를 분석, "100억원의 대출을 하면서 청해진해운 계열사 및 주요 주주에 대해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선박 개보수 비용도 회사 측이 제시한 견적서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사정하는 등 날림으로 심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흥기택 산은지주 회장은 "세월호 뿐 아니라 그 이전 다른 선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유병인 그룹'의 핵심 관계사인 ㈜전해지에 대한 기업은행의 대출 현황을 거론, "대출금 154억원 중 전해지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감정액은 134억원이지만 222억원의 담보를 인정했다"며 담보금을 과대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위의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추진된 자원 외교에 대해 정부가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해 거액의 투자금만 날렸으며 책임 소재를 밝히려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2008년 이후 본격화해 누적투자액이 2007년 2478억원에서 지난해 3조5997억원으로 14.5배나 뛰었지만 회수금은 이 가운데 336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오영식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라클라즈 유엔 탄광 사업에 자금을 투자했다가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원금 187억원 중 176억원을 전액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세월호 관련 감정평가사 등이 21일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실처리했다"면서 "문민화를 통해 MB 정부 5년간의 외국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공과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방위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성문 코바코 사장의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자기소개서'가 논란이 됐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이 이날 공개한 박 사장의 사장 재공모 지원서에 따르면 그는 "육영수 여사 서거 20주년이 되는 1994년 당시 큰 영애(박근혜 현

대통령)와의 특별 인터뷰를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이 같은 오랜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표의 측근이 됐고, 나아가 이른바 '친박그룹'의 일원으로 의정활동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고 소개했다. 심지어 박 사장은 '누가 코바코 사장에 응모할 것을 권했느냐'는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제 주변 친박 의원들과 상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박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강기정 "대우건설 고위직 대부분 '정피아' 차지"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 5년간 대우건설의 임원·사외이사·고문의 상당수를 '정피아' 인사들이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 이후 최근까지 대우건설에 등재된 임원·사외이사·고문 등 총 57명 가운데 17명이 정치권 출신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책기관 출신이 7명, 산업은행 출신이 4명, 군 장성 출신은 3명이었다.

임원 10명 중에는 산은 출신 4명이 후임에 자리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외

이사 11명 중에는 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언론인·법조인·공공기관 출신 등이 8명이나 됐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인 없는 회사인 대우건설의 사외이사과 고문단을 정권의 낙하산들이 장악한 결과,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이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사기꾼의 전화 한 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석 "코레일 직원·가족 무임승차, 만성적자에 한 몫"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직원과 가족들의 무임승차를 편법 부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21일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할인제도로 변경했으나 2012년부터 100% 할인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무임승차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임승차제도를 50% 할인으로 변경,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2012년 1편의 열차에 2회까지 동시에 할인 가능토록 해 사실상 무임승차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라며 "교통비를 보조받는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KTX 등 일반철도와

광역철도를 무임으로 승차하도록 해 지난해에만 122억여원의 수입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고·대학생 자녀에 대한 통학 승차권 발행, 직원 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까지 합하면 지난해 운임손실액만 168억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철도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14조8000억원, 부채비율 359.1%로 부채 역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영업 적자도 만성적이어서 재정상태 안정화를 위한 구조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주영순 "전남지역 비정규직 비율, 전국서 가장 높아"

전남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21일 공개한 지역별 고용형태 공시 분석을 보면, 전남의 직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56.5%로 울산이 48.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이어 경남이 65.4%였다.

전국 평균 79.9%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해당 지역 근로자 대부분이 파견·하도급·용역 등의 간접고용 상태인 것이다.

특히 직접고용 노동자 중 계약직이나 재택·가내 노동자 등 비정규직 비율은 전남이 58.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울산(57.6%)과 경남(41.8%)

이 뒤를 이었다.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지역이 비정규직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반면, 광주의 직접고용 근로자 비율은 90.5%로 제주 93.9%, 대구 90.8%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주 의원은 "특정 업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사업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면 협력업체 폐업, 비정규직 해고 등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전남·울산·경남 등 지역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첫 회의 앞둔 새누리 조강특위, 계파간 내홍 도화선되나

권한 놓고 친박·비박간 신경전

새누리당 조직강화특위(조강특위)가 구성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아직 첫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3일 조강특위 위원장인 이근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지만, 첫 회의는 국정감사 이후인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나 열릴 전망이다.

조강특위가 지역위원장을 선정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모든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친박(친 박근혜)계가 대폭 물감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반발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동안 잠재됐던 계파 간의 내용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친박계로 당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조강특위는 반자리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지, 있는 사람 목을 치는 게 아니다"라면서 "만일 그렇다면 서로 얼굴을 안 보자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조강특위에서는 당협위원장(옛 지구당위원장)이 공식인 이른바 '사고 당협'에 새로운 인사를

심의해 추천하는 것으로 국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97개 원외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를 조강특위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지만, 현역 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조강특위 권한을 넘어서는 최고위 의결 사항이라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친박 진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조강특위를 통해 '내 사람 심기'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 미묘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김성주 한적총재 도피성 해외 출국에 빨간 與野

### 국감 현장

여야 간사 국감일정 변경 가능 언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오는 23일 일로 예정된 대한적십자사 국감을 앞두고 김성주 신임 총재의 국감 불출석이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김 총재가 국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채 이날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

십자사연맹 아태지역 회의 참석차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자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김 총재가 오후 1시로 예정돼 있던 출국 시간을 바꿔 오전에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위원들의 비난 수위도 높아졌다. 이에 복지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춘진 의원과 여야 간사는 협의 끝에 국감 출석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변경해 출국을 강행한 것과 관련한 복지위원들의 유감과 국정감사 일정 변경 가능성을 김 총재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고용직 결혼정보회사**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영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경남대학교**

추천 회원	재혼
<b>남</b>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b>남</b>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b>女</b>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인주 아파트입) (063) 275-7766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자산건전성 8년 연속 1등급 달성!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최저 연 3.5%~**  
**햇살론 대출** 최고 2천만원 **신용대출** 최고 1억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 최고 80%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

대인본점: 진남이고, 구도성, 밀리오리, 대인마을, 새터은행, 대인광장, 유동  
 총장지점: 구도성, 총파, 우리은행, 삼성생명, 영동, 농문동